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집사의 자격

[딤후 3:8]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셈노스 σεμνός)[진지하고,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하고](Thayer, BDAG) **일구이언(一口二言)**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이익]를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는 재정 지출의 일을 하고 교회 안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직분이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었으나(행 2:41, 44) 단지 일곱 명의 집사들을 세웠다(행 6:3). 그들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었다. 8-10절과 12절은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7가지를 말한다.

집사는 우선 진지하고(KJV) 품위가 있고(NASB) 존경할 만한(NIV) 자이어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추천하였다(행 6:3). 집사는 다른 성도들에게서 칭찬을 듣고 좋은 평판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집사는 또한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하지 않는 자, 즉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성도들의 기본적 덕목이어야 한다. 성도들의 말은 한결같아야 한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일구이언하는 자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

집사는 또 술에 인박이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사람이 술에 인박이면 술 취하게 된다. 술 취함은 그에게서 바른 정신과 판단력을 빼앗아가고 그로 하여금 실수하고 범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경은 술 취함을 엄격히 금했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며(엡 5:18)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큰 죄라고 정죄하였다(고전 6:10; 갈 5:21).

집사는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건전한 인격은 돈 관계에서 깨끗한 자이다. 돈 계산이 흐리거나,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자는 인격에 결함이 있는 자이다. 특히, 집사는 현금을 계수하고 지출을 처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한다. 도둑질은 큰 죄악이며 인격의 큰 결함이다.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는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참된 믿음은 깨끗한 양심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참된 회개와 죄짓음과 함께 생긴다. 믿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다. 물론 그것은 성경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참 믿음은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다. 물론 그 믿음은 그의 인품과 행실로 나타날 것이다. 모든 성도는 이러한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집사 후보자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한다. 사람은 겉보기와 속이 다를 수 있다. 사람의 인격은 외모로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험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집사로 세우기 전에 교회는 먼저 그 후보자들에게 입시로 이런 저런 일들을 맡겨보고 그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서리집사’직의 설립 동기이었을 것이다. 그 시험 기간을 잘 통과하여 그들의 신앙사상의 건전함과 도덕성과 인격의 덕스러움이 확인되면, 교회는 그들을 집사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11절] **여자들(귀나리카스 γυναικας)[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셈노스 σεμνός)[진지하며, 품위가 있으며, 존경할 만하며] 참조하지 말며 절제하며(맑은 정신을 가지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NASB)은 장로들과 집사들의 ‘아내들’(KJV, NIV)을 가리킨다고 본다. 직분자의 직무 수행에는 남자들의 믿음과 인격성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의 헌신과 덕스러운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

우선, 아내들은 진지하고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한 자이어야 한다.

그들은 또 참조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참조하는 것은 남을 악하고 거짓되게 비난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쁜 인격의 모습이다. 사람의 인격의 온전함은 말의

온전함에 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생활에서 말의 부덕함은 직분자의 신임성을 손상시킬 큰 문제이다.

그들은 또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절제하는 자이어야 한다. 아내들은 맑은 정신과 절제심을 가지고 남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그들은 또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 충성은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충성은 믿을 만함이다. 교회봉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필요로 한다. 맑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고전 4:2). 그런데 남자들의 충성은 아내들의 충성스러운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아내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스러울 때 남자들은 하나님께 더욱 힘있게 충성할 수 있을 것이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사도 바울은 집사의 자격 요건을 다시 말한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것은 집사가 남편으로서 오직 한 아내에게 마음을 두고 그를 사랑해야 함을 말한다. 부부관계의 순결과 사랑은 좋은 인격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음란은 인격의 큰 결함이며 큰 죄악이다.

집사는 또 자녀들과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 이것은 부모들의 바른 교훈과 모범이 요구되는 일이다. 성경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경건하고 선한 모범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 집사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에서 존경을 받는 자라면, 그는 좋은 신자요 좋은 인격자일 것이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βάθμους βαθμός)지위, 단계, 등급)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직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등급을 얻는다. 즉 그들은 주 안에서 더욱 인정받는 자들이 된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영적 성장은 믿음의 성장이다. 모든 신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선한 봉사를 통하여 큰 담력을 얻은 자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좋은 지위와 큰 담력을 얻는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본문은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7가지를 열거한다. 그것은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생활과 봉사의 목표와 교훈이 된다. 첫째로 집사는 진지하고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한 자이어야 한다. 집사는 성도로서의 진지함과 품위를 갖춘 자로서 모든 성

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 둘째로, 집사는 일구이언(一口二言) 즉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그는 이 사람에게는 이 말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 하지 않는 자, 그의 말이 늘 한결같은 자, 늘 진실한 말만 하는 자이어야 한다. 셋째로, 집사는 술에 인박이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술 취함은 실수하고 범죄하는 큰 죄악이다. 넷째로, 집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그는 돈 사랑의 마음을 버린 자,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버는 자이어야 한다. 다섯째로,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죄 신앙을 가진 자, 중생의 체험을 한 자이어야 한다. 여섯째로,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일곱째로, 집사는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 집사직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주께 대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것이다.

또 본문은 장로와 집사의 아내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4가지를 열거한다. 첫째로, 그들은 진지하고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한 자이어야 한다. 둘째로, 그들은 남을 악하고 거짓되이 비난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셋째로, 그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절제하는 자이어야 한다. 넷째로, 그들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회의 감독들과 집사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좋은 인격이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도둑질, 음행, 무당에 대한 규례

[출 22:1-4]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아야 하였다. 비싼 것을 도둑질한 것은 싼 것을 도둑질한 것보다 더 많이 보상을 해야 했다. 도둑질한 물건값이 클수록 그 도둑질 행위가 더 악하다고 간주되었다.

[2-3절]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죽인다는 말은 밤에 이루어지는 일을 가리킨다. 해 돋은 후 도둑을 쳐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밤에 도둑을 막다가 그를 쳐죽이는 일은 허용되었다. 도둑을 막는 일은 정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인정되었다.

[3절]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은 그 주인에게 반드시 배상해야 하고 배상할 돈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했다. 몸을 판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그는 소나 나귀나 양의 경우를 물론하고 갑절을 배상해야 하였다.

[5-6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날거리[곡식단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했다. 또 사람이 불을 내어 다른 사람의 곡식단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했다. 사람은 자기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했다.

[7-9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逢賊)하였는데[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은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 . .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때,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야 하고,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어떠한 문제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했다. 8-9절에 3번 나오는 ‘재판장’이라는 원어(엘로힘 **עֲלֵמִים**)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재판장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었다고 보인다.

[10-15절]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주인은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그가 있을 때 봉적하였으면]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주인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

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빌려온 것이 그 임자[주인이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주인이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주인은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맹세는 갈등의 최후의 해결책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거짓 맹세하는 자를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있을 때 도둑을 맞았으면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하고,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며 그 찢긴 것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하고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세 낸 것도 세를 위해 왔은즉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세 낸 것도 세를 위해 왔다”는 말은 그 손실이 그 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 것 같다(NIV).

[16-17절]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동침하였으면 빙패[신부 부모에게 예물을 드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버지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레로 돈을 낼지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꺾어 동침하였으면 신부 부모에게 예물을 드리며 아내로 삼아야 했다. 신명기 22:29는 신부 부모에게 은 50세겔을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그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예물을 주는 뜻으로 돈을 내어야 했다.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무당의 활동은 악령들의 감동을 받은 잘못된 신비주의에 속한다. 사탄과 악령들도 상당히 신비한 일들을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신비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신명기 18:9-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좇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에도 만연해 있는 거짓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교합하거나 교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문란한 일’이다. 레위기 18:23,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테벨 **תבול**)[성적 도착, perversion(NASB, NIV)]이니라.” 그런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악한 행위이다. 레위기 20:15-16,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그런 자는 사형을 시켜야 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한 자는 엄격하게 배상해야 하였다. 신약 성도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서 4:28,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교인들도 범하기 쉬운 도둑질들 중, 남의 물건을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는 것, 도서관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책을 가져가는 것, 나라에 낼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석박사들의 논문표절,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도둑질을 멀리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성적 탈선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꺾어 동침하면 그를 아내로 삼아야 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어느 시대나 성적 문란이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 같다. 인터넷 문명과 더불어 현대 사회가 부도덕하고 음란한 풍조가 점점 심해지는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 단정하고 성결해야 한다. 우리는 음란성이 있는 TV 채널들을 멀리해야 하고 락 음악도 멀리해야 한다. 우리의 복장도 단정해야 하고 우리가 듣는 음악도 단정해야 한다. 빌립보서 1:9-11,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셋째로, 우리는 거짓된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무당은 악령들과 교제하는 자이다. 다른 신에게 제사드리는 자도 그러하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는 거짓된 신비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다. 오늘날 은사주의 풍조가 그러하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한 징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야 한다(요일 4:1).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우리는 은사주의를 경계하고 교회들과 목사들을 분별하고 신구약 66권의 성경말씀의 바른 교훈 안에 거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교훈하신 옛 길, 바른 길이다.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바른 목사들과 바른 교회들을 선택해야 한다.

수요일 설교

새 세계

[사 35:1-10]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언된 새 세계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세계이다. 2절,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고린도전서 6:9-11,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 . .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둘째로, 신약교회는 거룩한 교회이며 또 거룩한 교회이어야 한다.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 곳에는 죄와 불결과 사나움이 없어야 한다. 신약교회는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교회를 볼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교회의 구성원된 우리 자신이 그러해야 한다. 죄악되고 사납고 불결한 자들은 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안을 누리야 한다. 10절,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기쁨과 평안을 감사히 누리야 한다.